

56 석유화학공장 건설근로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성별	남성	나이	41세	직종	이산화탄소용접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근로자 ○○○은 1986년부터 제조, 건설업종의 여러 사업장에서 주로 용접을 하였고 2004년 12월부터는 □사업장 및 △사업장에서 건설일용직 용접사로 근무하였다. 그 후 2009년 12월부터 손과 발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되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 받고 입원 치료 중에 있다.

2 작업환경

○○○은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업체 및 현장에서 약 16년 동안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약 9년간은 도장업무를 용접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04년 12월 이 후부터 2010년 2월까지 □사업장 내 공사 현장 15개소 및 △사업장 대정비시 공사현장 6개소에서 건설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사업장 공사현장에서는 용접사로 일하였는데 배관용접작업을 하였고 주로 CO₂ 용접을 하였다. 배관용접 뿐만 아니라 배관을 지지하는 철구조물인 서포트의 용접 또한 하였다. 이때는 도료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하여 페인트 내에 함유된 중금속 등이 흙의 형태로 노출되기도 하였다. 도장된 구조물을 용접하는 경우에 납 등의 중금속에 제한적으로 노출될 수 있었고 용접시 용접 모재에 함유된 알루미늄과 카드뮴등의 중금속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신경계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분진, 중금속)

5 의학적 소견

○○○은 2009년 9월경부터 용접기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차츰 손의 힘이 약해지고 팔 전체로 증상이 확산되었다. 2009년 11월 경 부터는 젓가락질이 불가능해지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힘들어 졌으며, 12월에는 오른 쪽 발에도 근력이 약해지는 증상이 있었다. 병원에서 신경학적 검사 및 근전도 추적 검사를 받은 결과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 받았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1986년부터 약 24년간 일용직 근로자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약 9년간 도장업무와 용접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하면서 중금속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요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으로는 근로자가 노출된 중금속과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